

□ 특별기고 □

금융전산시스템 개발 현황과 발전방향

조 이 남[†] 박 정 현^{††}

◆ 목 차 ◆

- | | |
|---------------|------------------|
| 1. 서론 | 3. 금융전산시스템의 과제 |
| 2. 금융전산시스템 현황 | 4. 금융전산시스템의 발전방향 |

1. 서론

국내 은행은 최근 몇 년간 은행간 인수·합병 등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여파로 합병은행간 시스템 통합작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전산시스템의 개선 등 수동적인 안정화 작업외에 IT(Information Technology)분야의 신규투자를 통한 시스템 확충 및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환경구축에는 전력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금융시장 개방 및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은행을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하였고 국내 은행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고객의 변화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IT분야의 신규 투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향후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정보통신기술 투자가 주도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점과 특히 국내 은행의 영업비중이 증가된 소매금융분야의 승패는 정보기술의 활용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효율성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대내외적 전망을 고려한다면 신규 시스템의 확충 및 정비에 은행이 직면한 중요한 선결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은행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의 카테고리를 기조로 IT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 | | |
|--------------|---|
| Category I | 고객관계관리시스템, 종합수익관리시스템, 리스크관리시스템 등 각종 전략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계정계 및 정보계 통합형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시스템 선진화 |
| Category II | 인터넷뱅킹을 중심으로 한 e-business 및 Global business 환경수용을 위한 관련 인프라 마련 및 시스템 확충 |
| Category III | 은행 경쟁력 제고 및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존 전산시스템의 개선 및 활용도 제고 |

특히 차세대시스템 구축의 경우는 은행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핵심요소로 신속한 투자 및 구축이 요구되는 반면 장기적으로 은행 전산시스템의 큰 틀을 새로 세운다는 거시적인 중요성이 있으므로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한 신중한 진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도 동 3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전산시스템의 현 위치를 되돌아 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정회원 : 금융결제원 전무이사
 †† 정회원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

2. 금융전산시스템 현황

2.1 개별은행

지난 90년대 들어서 종합 온라인 개발을 완료한 국내 은행은 경쟁적으로 은행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며 IT부문에 많은 투자를 집중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당시 금융전산은 우리나라 산업계의 전산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많은 기업들이 금융전산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등 은행은 전산인력의 주요 공급채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로 반복적이고 단순한 은행업무의 자동화 및 고객의 금융거래 전산화에만 투자가 집중되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 및 고객관리시스템 등 전략 정보시스템 개발에 치중한 미국 등 구미 선진은행과의 경쟁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최근 이러한 전략정보시스템 개발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한 국내 은행은 정보계 기능(표1 참조) 강화를 골자로 하는 차세대시스템 개발 및 다양한 신정보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은행 별로 진행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발빠른 은행의 경우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거나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아키텍처(Architecture) 수립, 데이터 및 업무프로세스 모델링(Modeling) 등 기본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차세대시스템 적용을 위한 막바지 작업만 남겨 두는 등 은행은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우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전략정보시스템 부문에서도 이미 대다수의 은행이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 Consum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을 중심으로 종합수익관리시스템, 원가관리시스템, 리스크 관리시스

템, 지식경영시스템(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 등 다양한 부문의 신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특히 은행 자체적으로 수신, 신탁, 여신, 카드, 외환, 고객부문 등 은행업무 전반에 대한 데이터웨어하우스(Datawarehouse) 및 전사적기업관리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개발에 성공하는 등 국내 은행의 정보시스템 역량은 올해를 기점으로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의 도약이 예견되고 있다.

〈표 1〉 정보계시스템 업무 내용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관리 · 고객별 각종 정보 관리 · 고객별 가격 결정 지원 · 예상고객 개발 · 세분시장 분석 · 고객 Relationship 관리 · 고객 서비스 관리 · 고객 재산 관리 · 포트폴리오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 · 경제위험 관리 · 시장위험 관리 · 신용위험 관리 · 위험전략 개발 ○ 시장조사 · 구매자 분석 · 경쟁사 분석 · 환경 분석 ○ 업적관리 · 업무별 업적 관리 · 세분시장별 업적 관리 · 조직별 업적 관리 · 직원별 업적 관리 ○ 점포계획 · 점포환경 구축 및 재산분석 · 점포 주변 가능성 분석 · 점포 입지 계획 ○ 출자기업 · 경영관리 · 경영실적 평가 ○ 영업관리 · 자체 영업계획 관리 · 영업점 내부 관리 · 통계 및 계수 관리 ○ 영업추진 · 설의 지원 · 여신심사 지원 · 지도 정보 · 통신판매 개발 관리 · 광고 기획 관리 · 마케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급여 · 인사· 기획 관리 · 인사 관리 · 교육 훈련 관리 · 노무 관리 · 급여· 상여 관리 · 복지· 후생 관리 ○ 전산관리 · 전산 개발 관리 · 전산 운영 관리 · 컴퓨터 안전 관리 · OA 추진 관리 ○ 기간업무 · 수신 · 여신 · 외국환 · 신탁 ○ 원가계산 · 비용· 수익 배부, 이전가격 책정 · 표준사무량 조사 · 표준 원가 계산 ○ 총무 및 재산 · 규정 관리 · 업무 제안 관리 · 문서 관리 · 주식 업무 · 감사 지원 · 동· 부동산 관리 · 용도품 관리 · 장표 관리

아울러 국내 은행은 향후 구축되는 이와같은 모든 신시스템에 대해서 인터넷기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e-business 역량 강화에 대한 은행의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차세대시스템 및 신정보시스템이 은행 내부적 역량 강화의 핵심이라면 급속히 변화하는 금융환경 및 고객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부적 역량강화의 핵심은 인터넷 기반의 e-business 역량 강화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뱅킹서비스의 경우 초기 한국통신이 주도하는뱅크타운(www.banktown.com) 공동서비스 형태에서 탈피하여 이미 대다수의 은행이 자체 인터넷뱅킹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뱅킹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독립적인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설립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확산일로에 있는 겸업주의를 기반으로 은행은 금융포탈사이트(Financial Portal Site)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또 하나의 중요한 e-business 모델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미 일부 은행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 및 증권관련 서비스는 물론 동호회(Community) 구성 및 무료 메일계정 지원, 생활정보를 비롯한 기초적인 개인 자금관리서비스(PFM :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제공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포탈 사이트를 향한 행보도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은행의 모든 새로운 움직임은 결국 수익성 강화라는 하나의 귀결점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대외계시스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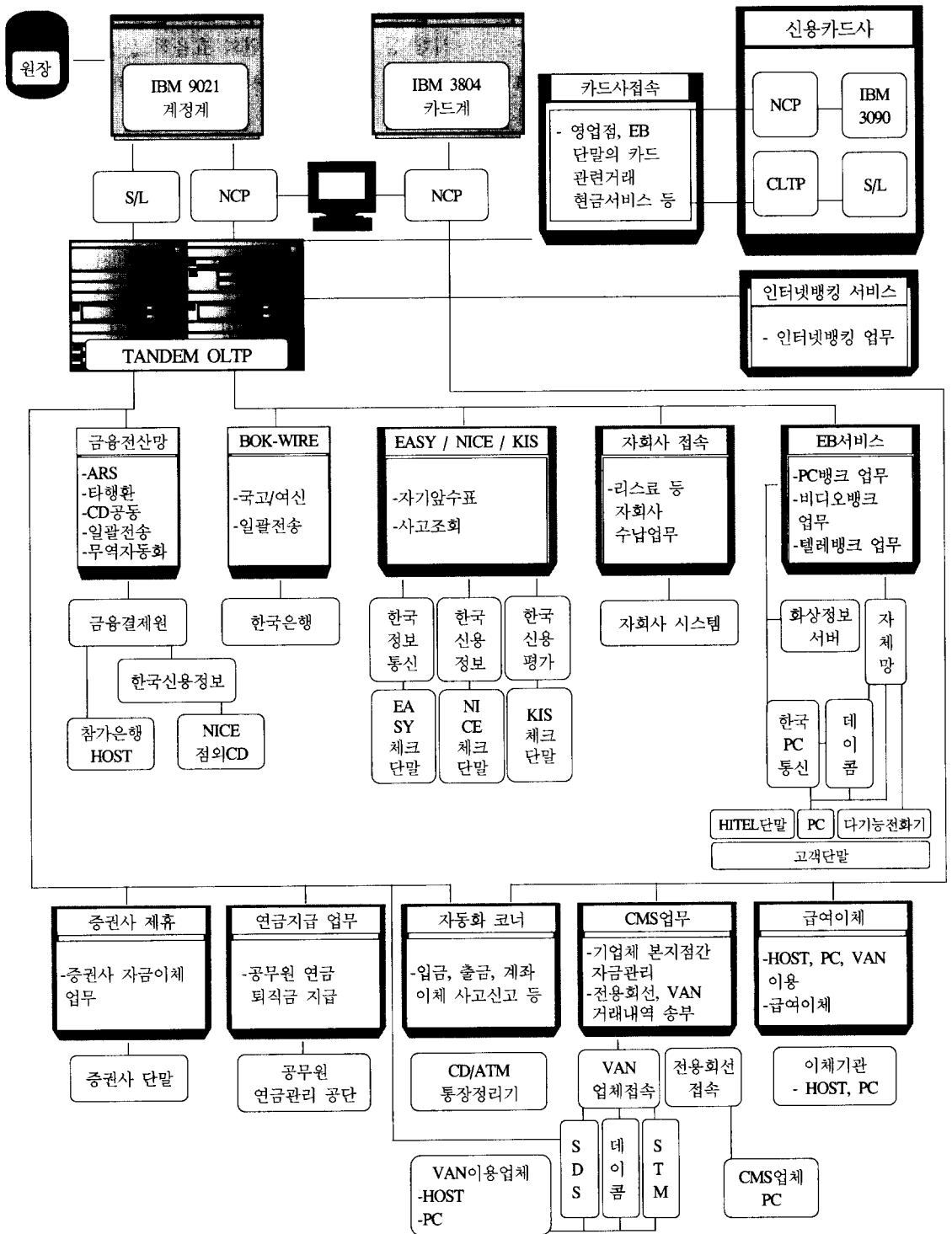
활용한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나 공동업무 시행 등 기존 전산자원의 효율적 운영 또한 수익성 강화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대외계시스템과 금융결제원의 중계시스템을 연결하여 구축된 금융공동망(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ARS공동망 등)은 전국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단일망으로 지역별 분산망을 거쳐 단일망 형태로 변환한 일본이나 아직 지역별 네트워크만 운영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때 은행 전산자원을 활용한 국내 은행 경쟁력 강화의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은행은 금융결제원을 통한 무역자동화망 및 경찰망과의 연계로 은행전산망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였으며 카드사와의 접속을 통한 현금서비스 및 관련거래 처리는 물론 최근에는 대외계시스템을 통한 증권사 및 보험사, 통신업체, 일반 기업체등과의 제휴를 강화하며 홈뱅킹(Home Banking) 및 펌뱅킹(Firm Banking) 등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성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은행은 대외계시스템의 중앙은행 연계를 통해 국고업무 및 중앙은행의 대출 관리 등 기본적인 은행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e-business 활성화 추세에 따라 기존 전산자원을 활용한 인터넷전문업체와의 업무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그림 1 참조)

2.2 공동전산시스템

은행 공동전산망은 84년 5월 금융기관 대표자 회의에서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추진방안」이 확정되어 현금자동인출기 공동망(88년 7월)이 최초 가동된 이후, 타행환공동망(89년 12월), 자동응답서비스(ARS) 공동망(89년 4월), 직불카드공동망(96년 2월), 자금관리서비스(CMS) 공동망(96년 8월),



(그림 1) 대외접속 SYSTEM 구성도 (××은행 사례)

지방 은행공동정보망(97년 6월) 등 다양한 공동전산망이 각기 순차적으로 구축되어 국가 금융산업의 기간전산망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 공동전산망은 외부망과의 다양한 접속 및 제휴를 통하여 국가적 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도모하고 있는데 경찰망과의 연결을 통한 은행계좌 부정사용 범인의 현장검거 지원, 점외 CD/ATM 공동망과의 접속을 통한 공공장소에서의 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 제공, 종합무역자동화망과의 제휴를 통한 무역 자동화업무 실시,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SWIFT)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금융업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지원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은행 공동전산망 사업은 기본적으로 은행간 전산자원을 연계하여 개별은행의 거래제약을 극복하고 은행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신규 금융서비스 창출 및 투자비용 절감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자화폐 및 전자정보교환(Truncation)업무, 주택청약공동업무가 주요 은행 공동전산 사업으로 개발 완료되었으며 간략히 그 사업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2.1 전자화폐 공동업무

국내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은행공동 전자화폐로 K-CASH를 개발 완료하여 금년 7월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시범사업 실시중에 있으며 조만간 전국을 대상으로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K-CASH는 전자화폐의 범용성과 금융기관간 차액결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은행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순수 국내기술을 통해 개발된 고성능 IC칩 및 보안 알고리즘을 채택하였으며 1장의 K-CASH에 현금/신용/직불카드의

기능이 모두 탑재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접촉식 및 비접촉식 지원이 모두 가능한 콤비카드(Combi Card) 방식으로 구현되어 향후 인터넷 전자 상거래 및 교통분야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2.2.2 전자정보교환(Truncation) 업무

전자정보교환(Truncation) 업무는 어음·수표, 지로 등 모든 은행의 수납장표 처리업무를 실물의 이동없이 전산정보자료의 교환만으로 종결토록 하여 은행 수납장표업무의 전산정보화를 구현하는데 그 사업 목적이 있다.

금융결제원과 은행의 공동 개발을 통해 금년 7월에 사업화를 완결하고 현재 사업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작성된 정보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통신망도 금융기관의 기존 통신망인 본지점 온라인망을 활용하는 등 효율성과 경제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되었다.

이제 은행은 장표실물의 비효율적인 운송작업 및 교환작업이 사라져 장표 수납관련 창구업무의 획기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미 전자정보교환(Truncation) 업무를 통해 상당한 개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2.3 주택청약 공동업무

금년부터 국내 전 은행에서 고객이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상품이 자유롭게 취급 가능해지며 금융결제원은 은행과 공동으로 주택청약공동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택청약 은행공동시스템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청약계좌 및 당첨계좌 관리,

입주자선정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첨자 조회, 청약자격 조회, 청약가능주택 조회 등 주택청약에 관련된 상세한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도 조만간 오픈을 앞두고 있어 입주자 저축상품 가입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은행 공동전산망 사업이 폐쇄망 위주의 공동사업 형태가 주류를 이루어 추진되어 왔다면 향후 은행 공동전산 사업은 인터넷기반의 e-business 공동인프라 구축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금융환경이 인터넷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은행 e-business의 중요성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최근들어 은행은 은행공동의 e-business사업분야 진출도 서두르고 있는데, 타 통산업체 및 인터넷전문업체에 비교할 때 뒤늦은 감은 있지만 e-business 중요성에 대한 은행의 높은 관심도를 고려하면 동 사업분야에 대한 은행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 전망은 밝다.

국내 은행은 이와 같은 e-business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3월에 EBPP (Electronic Bill Presentation & Payment) 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인터넷을 통해 요금청구 및 납부가 가능한 국내 최초의 EBPP서비스인 인터넷지로(www.giro.or.kr) 서비스를 오픈하였으며, 금년중 전자상거래분야 은행공동 진출을 목표로 은행공동 PG(Payment Gateway) 사업의 개발도 진행중에 있어 차후 은행의 e-business 역량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은행이 은행권 인증기관 설치를 통해 준비해 온 공인인증서비스가 시범서비스 실시(9월 1일)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인증 서비스로 상

용화되면 인터넷 금융거래 활성화는 물론 공인인증서 활용을 통한 국내 전자상거래의 안정화 등 인터넷 금융거래에 새 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신규서비스 도입을 통하여 향후 은행 e-business의 경쟁력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신규서비스의 도입외에 장기적인 은행 e-business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한 은행공동 전산인프라 확충 또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최근 국내 은행은 지역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인터넷중심의 금융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터넷뱅킹 등 은행간 전자금융거래 처리를 전담하는 전자금융공동망(가칭) 구축에 착수했으며 이미 기본적인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고 은행간 테스트 작업을 앞두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공동망(가칭)의 전산센터를 담당할 금융결제원의 경우 365일 24시간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내 은행간 전자금융거래는 거래시간 제약 극복 등 다양한 제반 제약요인의 해소를 통해 그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3. 금융전산시스템의 과제

은행의 지원업무 정도로만 여겨지던 IT부문이 이제는 21세기 은행의 생존 전략으로, 장기적인 은행경영 승패의 최대 화두로, 은행의 핵심역량을 대변 하는 주요 요인으로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은행경쟁력의 큰 틀이 은행의 IT시스템 투자전략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IT가 경영모델을 구축한다 할 정도로 은행 IT부

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최근 국내 은행이 엄청난 투자비용을 들여 진행중인 계정계와 정보계를 통합한 싱글시스템 구축, 과목(보통, 저축, 적금 등) 중심 시스템에서 고객중심시스템으로의 전환, 웹 기반의 비즈니스 환경 수용, 고객관계관리시스템 및 종합수익관리시스템 도입 등의 선진국형 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은 그 방향성 면에서 향후 은행 IT부문 역량의 획기적인 개선이 예견되는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국내 은행의 경우는 은행간 인수, 합병 등에 따라 조직 및 시스템 정비 기간내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이탈 방지 등의 선결과제를 갖고 있는 만큼 피합병은행 고객의 충성도(Royalty) 유지 및 관계 복원문제를 차제에 고객 관계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경우는 특별히 개별은행 특성 및 환경에 부합하는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는데 솔루션 공급업체들이 제시하는 고객관계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적합성 여부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패키지 형태의 구입이 아닌 은행 자체 개발 방침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국내 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과제중 향후 가장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직접적인 당면과제로 금융전산망 백업센터 구축을 들 수 있겠는데, 천재지변·사고 등의 재해 및 대규모 정기적 장애에 의한 전산망의 전면마비를 미연에 방지하여 은행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업센터의 구축은 특히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례해서 백업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개별은행 투자 부담도 작지 않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은행 공동전산망 백업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은행이 원할 경우 은행 개별전산망의 백업부문까지 처리 가능토록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여 상당한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은행 개별전산망 백업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지원방안도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차제에 은행내 IT관련 사업부서 직원들에 대한 성과별 보상시스템 활성화도 은행 IT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번 고려해 볼만한 사안인데, 일반 은행 직원들은 영업능력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보상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반면 현재 국내은행의 전반적인 실정이 유독 IT 직원들에 대한 은행의 배려가 부족한 형편인 것 같다.

적절한 IT 직원에 대한 보상시스템 연계는 관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추진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은행내 IT부문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상으로도 인적자원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전략이야말로 작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은행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4. 금융전산시스템의 발전방향

국내 은행은 최근 외형위주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기반한 은행내실 강화 위주로 은행경영의 큰 흐름을 전환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추세를 고려할 때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국내 은행이 안고 있는 여러 주요 현안들, 즉 새로운 IT 시스템의 확충, e-business의 활성화 등 다방면의

문제에서도 향후 은행이 고려할 수 있는 최적의 발전방향은 투자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 극대화에 있다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진행중인 차세대 시스템 구축의 경우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은행의 비용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의 IT부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규모 전산시스템 투자는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은행의 장치산업화에 대비한 투자비용 절감의 중요성은 향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 은행도 은행 개별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지양하고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는 은행공동의 전략적인 투자제휴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미 가까운 일본의 경우 NTT 데이터를 중심으로 금년부터 계정계, 대외계, 외국환계 등 은행공동 차세대시스템 센터를 구축하여 아웃소싱 방식으로 복수의 은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세대시스템 공동센터 구축사업을 야심차게 추진중에 있다.

최종적으로 15개 은행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일본의 신 공동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내 은행들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시스템 투자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은행공동 IT투자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그 진행속도는 더디지만 IT분야 공동투자에 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은행들이 생겨나는 등 IT시스템 공동투자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는 것은 국내 은행산업의 전반적인 발전 측면에서도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특히 이러한 은행들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투자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e-business 분야에서 그 실효성이 크게 발생하리라 기대되는데 e-business의 경우 그 적용기술의 발달속도가 빠르고 제휴를 통한 투자비용 절감이 수익향상을 위한 가장 좋은 전략으로 업계에서도 이미 평가받고 있어 본질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위주로 하는 업종이 아닌 은행의 경우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은행간 e-business관련 기술의 공동 개발이나 공동사업 추진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은행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북미 지역 16개은행을 중심으로 인티그리온(Integriion)이라는 컨소시엄을 96년에 형성하여 은행의 신규 업무 추진시 기술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체계화된 솔루션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전략적으로 은행공동 사업화하고 있어 신규 업무 진출시 개발비용 부담이 작지 않은 국내 은행도 참고할만한 사례라 하겠다.

아울러 현재 은행은 2차 구조조정이라는 내부적 어려움과 인터넷의 발달이 몰고온 금융상품의 디지털화에 따른 은행산업의 비트비즈니스(bit business)화로 이종업계의 은행 고유영역 잠식이라는 외부적 어려움 등 대내외적 시련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도 현재의 전통적인 금융산업 형태의 유지만으로는 더이상 수익을 올릴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제 은행도 적극적인 다각적인 수입다각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하겠는데, 전자상거래관련 제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장 직접 진출 등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미 금년 3월에 뉴욕연방준비은행(FRBNY)은 「The Emerging Role of Banks in E-commerce」라

는 기고문에서 은행이 전자상거래 상품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고객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비은행 금융서비스 제공업자나 기술회사에 의한 업무잠식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발표한다.

즉 은행의 전자상거래시장 직접 진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검토가 장기적인 은행의 생존전략 측면에서 이제 한번은 고려해야할 은행의 주요 당면과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비대면 거래의 불안정성으로 거래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시장 측면에서 볼 때 은행의 안정성과 신뢰성의 활용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 국내 은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 [1]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우리나라 전자금융의 현황과 전망, 1996. 8.
- [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1999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2000. 7.
- [3] 김병연, “전자금융거래확대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산업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금융연구원, 2000. 4.
- [4] 유용주,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디지털 심포지움 자료집, 삼성경제연구소, 2000. 5.

- [5] 강호병, “e-business : 금융산업의 뉴 메가트렌드”, LG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16호, LG경제연구원, 2000. 5.
- [6] 성기윤, “사이버금융의 현황 및 환경변화”, 데이터베이스월드 '99. 11월호, 한국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9. 11.
- [7] Anderson Consulting Group, eBusiness : Way to improve All Business Practices Network-enabled Technology, 2000.
- [8] priceWaterhouseCoopers : e-business conference 제출자료, 2000.



조 이 남

1965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학사)
 1970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전자자료처리(경제학 석사)
 1987년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산학과(공학석사)

1993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이학박사)
 1998년 금융결제원 전무이사
 1998년-1999년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회장
 1999년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



박 정 현

1998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학사)
 1998년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 전자금융기획팀